



■ 광주 2011 문화 전망

2011 광주 문화계 최대 이슈는 광주문화재단의 출범이다. 기존 광주문화진흥예술위원회와 광주공연예술재단 사업을 그대로 가져간 데다 아트페어 등 신규 사업까지 맡게 된 재단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된다. 광주예총과 광주민예총 등 양대 예술단체는 1월 중순 신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등 굵직한 축제들이 대기중이며 고호 등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전시가 열리는 등 문화계는 어느해보다 풍성하다. 공연·전시·문학 등 각 장르의 2011년을 전망해본다.

‘문화예술 총사령부’ 문화재단 역할 주목

공연

문예회관 20주년, ‘까투리 까투리’ 등 기념공연 풍성... 첫 3D영화제 개최

올해는 광주문예회관이 개관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건물이 낙후돼 대규모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예산이 만만찮은데다 광주에서 1000석 이상 공연장으로서는 유일한 터라 장기간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회관측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된 이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다. 대신 풍성한 기념 공연을 준비했다. 10월에는 광주시립무용단이 발레 ‘성웅 이순신’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 1992년 광주문예회관 개관 1주년 기념작이었던 ‘우수영의 원무’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소년소녀합창단이 무대에 올리는 뮤지컬 ‘까투리! 까투리!’는 전라도 민요 ‘까투리 타령’의 주제 선율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까투리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

다. 1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다. 국극단 등 6개 시립예술단체는 찾아가는 예술단 124회를 포함해 모두 217회 공연을 진행한다. 국악관현악단은 지역작곡가들의 창작음악회와 교성곡 ‘코리아 환상곡’을 준비 중이다. 40대 젊은 소리꾼 윤진철씨를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영입한 국극단은 창극 ‘임방울의 쑥대머리’와 ‘도끼전’을 공연한다. 무용단은 ‘실비아’와 5·18을 소재로한 ‘오월의 빛’, 정율성의 ‘망부원’을 연말에는 고정 레퍼토리 ‘호두까기 인형’을 무대에 올린다. 교향악단은 2월말로 지휘봉을 놓는 구자범 상임지휘자의 후임을 선임하는 게 급선무다. 지난 2008년 상임지휘자 없이 표류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졌던 점을 감

안하면 상임 지휘자의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구 지휘자는 2월 28일 ‘슈만교향곡 2번’으로 마지막 무대에 선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행사들도 눈길을 끈다.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3D영화제’를 개최하며 지금까지 광주시 지원이 끊겨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됐던 광주국제영화제 역시 내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 일정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됐다. 굵직한 공연 축제들도 대기 중이다. 눈에 띄는 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에디버러 국제축제교류사업이다. 축제의 도시로 알려진 영국 에디버러시와 교류하는 사업이 어떤 모습으로 이뤄질지 기대가 높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관객들의 호응



으로 지역 대표브랜드 가능성을 보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올해 어떤 라인업을 선보일지 기대되며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정율성국제음악제의 프로그램도 어떻게 짜여질 지 관심사다. 그밖에 연합협회는 ‘광주영화연극제’의 규모를 키워 5월에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2012년 전국연극제 유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5·18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던 각종 공연들은 올해도 관객들을 만난다. 뮤지컬 ‘화려한 휴가’가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다시 무대에 오르며 푸른연극마을의 ‘오월 해인굿·오월 비나리’는 ‘오월 영혼 결흔식’으로 버전업 해 공연한다. 지역 극단들의 변화도 기대된

다. 극단 진달래 피네는 전용 극장인 문예정터를 세익스피어 작품 전용 상설 극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며 푸른연극마을은 올해 안에 전용소극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시

키스해링·디자인비엔날레 등 블록버스터 전시... ‘후기인상파’전 첫 선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블록버스터 전시가 대거 열린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비롯해 고호·고경·세잔, 팝아트의 거장 키스 해링, 독일의 국보 작가 요셉 보이스전 등 블록버스터가 풍성하다.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는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道)를 주제로 광주를 현대 디자인의 향연으로 이끌게 된다.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도라고 칭하는 것이 다 도가 아니다) 문구 중 길 도(道)를 디자인을 뜻하는 그림 도(圖)로 바꾼 것으로 디자인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전시는 크게 ▲유명(Named) 디자인 ▲무명(Unnamed) 디자인 ▲폴리 프로젝트(Folly Project) ▲아

카데미와 커뮤니티(Communities)로 나눠 진행된다. 유명디자인은 현재와 과거에 디자인 분야에 중요한 ‘이름’을 남긴 100명의 혁신적인 사람들의 작품·사건을 모은 색션이다. 무명디자인은 이와 반대로, 이름이 없는 무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공동감독인 아이 웨이웨이 가 지휘한다. 이 두 색션은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비디자인적인 요소’를 비교 감상하며, 진정한 디자인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진다. 전시장은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과 일반인의 작품이 어우러진 ‘디자인 도시’로 꾸며지며, 우리 삶 속의 다양한 디자인을 도심을 거닐 듯 감상할 수 있게 설

계한다. 또 세계 3대 건축가로 손꼽히는 도미니크 페로 등 건축가들이 광주 도심 터 인근의 버스정류장, 하수구, 건물 사이의 공간에 이색 조형물을 세우는 ‘폴리 프로젝트’(Folly Project)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출범한 광주문화재단이 지휘하게 된 제2회 광주아트페어도 기대되는 기획이다. 지난해 첫 대회에 국내외 유명 갤러리 53곳이 참여해 280여명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올해는 참여 화가를 늘려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올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인 요셉 보이스(Joseph Beuys·1921~1986년)전은 독일 현대 미술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는 기회다. 요셉 보이스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지난 1962년 독



일 비스바렌에서 열린 ‘플러시스 페스티벌’에서 백남준은 3대의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마지막에 도끼로 백남준의 피아노를 내려친 사람이 보이셨다. 후기인상파와 대표작가들의 작품도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다. 시립미술관은 올 가을에 고호·고경·세잔의 작품을 묶어 선보이는 ‘후기인상파’전을 열 계획이다. 이들 작가들은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더 없는 교

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립미술관 급남로분관에서 열리고 있는 팝아트의 거장 ‘키스 해링’(2월27일까지)전에는 그의 대표작 150여점을 내려친 사람이 보이셨다. 키스 해링은 앤디 워홀과 함께 20세기 팝아트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인 작가로 거리의 벽면이나 지하철 광고판 등에 낙서를 그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 지역 미술계를 이끌게 될 신임 광주시립미술관장 선임도 가장 뜨거운

관심 분야다. 지난해 공모에서 후보자를 찾지 못한 광주시는 차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의 직급을 높여서라도 국제적 감각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를 찾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 4급 대우를 받는 계약직 가급인 미술관장의 지위를 일반직 공무원 1~2급 대우로 올려서라도 유명 인사를 찾겠다는 것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학관·시문학파 기념관 건립... ‘태백산맥 문학기행’ 올해도 이어져

올해 문학·출판계는 광주문학관 건립의 소식을 다지고 지역 문화 활성화 등 내실을 기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우선, 지역 문단의 오랜 숙원 사업인 광주문학관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주시는 2012년 11월 문학관 개관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만들고 가고 있다. 하지만 문학관에 담을 콘텐츠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광주를 대표하는 문인인 다형 김현승 시인의 탄생 100년(2013년)을 앞두고 선생의 문

학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다형 김현승 시인 기념사업회’(회장 손광은)는 올해도 생가터(광주시 남구 양림동 78번지) 표지석 건립, 김현승 시비 정비사업, 다형 김현승 전국 학생 문학 공모대회, 학술발표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진에 추진중인 ‘한국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도 기대된다. 강진군은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와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학관련 단체들도 새해 새 진용을 갖추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문인협회는 오는 6월 선거를 통해 신임회장을 뽑고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1월 새롭게 집행부를 꾸린 광주전남작가회의도 지난해와 같이 오월문학제, 심진강 문학기행, 인문학포럼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전남문인협회(회장 이성관)는 올해에도 섬지역 순회 시낭송회, 찾아가는 문학강좌, 백일장 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지난해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태백산맥 문학기행’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제불황 속에서도 동인회가 활



기를 찾고 기성 작가들 전 창작의지를 높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작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로시인 범대순씨와 광주전남작가회의 의를 이끌었던 고재중 시인은 신작 시집 출간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장편역사소설 ‘왕인’(전3권)을 썼던 소설가 송은일씨와 ‘꾼-이야기 하나로 세상을 희롱한 조선의 책 읽어주는 남자’로 인기를 모았던 이화경씨, ‘나비야 나비야’의 은미희씨도 꾸준히 창작작업을 하고 있어 차기작이 기대된다.

또한 인도에 머물고 있는 광재구 시인이 올 여름 귀국할 예정이어서 그의 차기작 또한 기대를 모은다. 반면, 서점가와 지역 출판계의 장기침체와 불황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학